"맨발 산행…흙길 밟으며 힐링하세요"

목포시 양을산에 '맨발로 청춘길' 울창한 숲 속 왕복 3km 구간 세족장·신발장 등 편의시설 설치

산 전체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산림욕장이나 다름없는 목포 양을산에 '맨발로 청춘길'이 조성

맨발로 청춘길은 맨발로 걷는 숲길로, 맨발로 걸으면 청춘처럼 건강해진다는 의미를 담았다.

용해동 청산아파트 뒤 체육공원에서 양을산 산 림욕장 태을계곡까지 왕복 3km 구간에 조성됐다.

이 곳은 숲이 울창하고 평탄한 지형의 흙길이어

서 누구나 쉽게 맨발 산행을 체험할 수 있다. 목포시는 맨발 산행길 조성을 위해 자갈길을 흙 길로 정비하고 세족장, 신발장, 안내판 등 편의시

설을 설치했다. 시는 양을산을 비롯해 유달산, 입암산 등 맨발로 걷는 길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맨발건기길을 찾은 김종식 목포시장 은 "건강증진에 효과적인 맨발산행이 새로운 산행 문화로 확산되는 추세"라면서 "시민들이 일상 속 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달산, 입암산 등으로 맨발 산책길을 확대해가겠 다"고 밝혔다.

전남도에서도 도내 맨발걷기 좋은 곳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다.

전남도는 최근 목포 양을산을 비롯해 영광 물무



목포 양을산을 찾은 시민들이 맨발로 산책길을 걸으며 힐링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산, 진도 운림산림욕장, 함평천지길, 화순 만연산 치유의 숲 등 8곳을 맨발걷기 좋은 곳으로 선정하 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맨발걷기가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각종 염증

및 스트레스 해소 등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 려지면서 맨발걷기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 졌기 때문이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영암군 내년예산 6273억 편성 올 예산보다 9.2% 528억 증가

영암군이 6273억원의 2022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해 영암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 5745억원 대비 528억원 (9.20%) 증가한 것으로, 위드 코로나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565억원(11.17%)이 증가한 5627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11억원(11.08%)이 늘어난 109억원이다.

사회복지분야 1337억원 (21.32%), 농림해양수 산분야 1452억원 (23.15%), 환경분야 823억원 (13.12%), 국토지역개발 및 교통물류분야가 733 억원 (11.68%)이다. 내년에는 기초연금 420억 원, 친환경급식 제공 등 아동 및 청소년 복지증진 을 위해 29억원, 노인·지역 사회활동 일지원 지원 사업에 34억원을 편성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고통받는 지역민을 위해 120억원, 지역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 21억원도 포함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영암군의회는 2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 사무감사와 함께 내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무안군,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3D 공연

국내 첫 입체 애니메이션 뮤지컬 26일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안군은 2021년 문화공감 방방곡곡 공모사업에 선정된 입체동화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3D'공연을 26일 오후 7시 승달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공연은 영국의 작가 루이스 캐럴의 동화 '이 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그 속편인 '거울 나라의 앨 리스'를 원작으로 제작됐으며, 국내 최초 3D 라이 센스 뮤지컬로 2010년부터 전 세계에서 2000여회 이상 공연된 인기 뮤지컬이다.

다양한 시·공간을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환상적인 분위기 연출, 앨리스의 내면세계 등 그동안

많은 제약으로 인해 구현할 수 없었던 상상 속 '이 상한 나라'를 입체영상을 통해 완벽히 재현해 낸 작품으로 관객들과 소통을 통해 실감콘텐츠와 공 연예술을 융합해 한편의 영화를 보는듯한 느낌을 전달할 예정이다.

뮤지컬은 '일행 간 한칸 띄어 앉기', '입장객 체온체크',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단계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개최된다. 관람료는 3000원이고 예매는 전화(061-450-4090)를 통해 가능하다.

무안군은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와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D 뮤지컬을 준비했다"며 "실감나는 입체영상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이번 공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말했다. /무안=임동현기자 idh@kwangju.co.kr

신안군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공모 선정

1억원 확보 푸드플랜 수립 용역

신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푸드플랜은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유통, 소비 와 더불어 건강, 복지, 환경, 일자리 창출 등 다양 한 먹거리 분야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사업비 1억원(국비

5000만원)을 확보한 군은 지역농산물 기획·생산·설계, 의견수렴을 위한 먹거리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푸드플랜 수립을 통해 군민을 위한 안정적인 먹거리 기반을 마련하고 농수산물 판로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실있는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지난 20·21일 양일간 해남천 일대에서 청년의 날을 기념한 청년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열렸다.

해남군 '청년어울림 한마당 축제' 성료

해남군 청년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성황리에 개 치됐다

지난 20~21일 이틀간 열린 이번 청년어울림 한마당은 해남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청년축제로 지역 청년들이 기획·추진하면서 청년들의 눈높이에맞는 축제행사로 진행됐다.

첫날 20일에는 코로나19로 미뤄진 청년의 날을 축하하는 기념식과 함께 해남국악전수관과 풍물 굿패 '해원'의 국악한마당, 조선 시대 관리의 공식 행사 행진음악인 대취타 공연과 태권무 등 지역에 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인들의 공연이 열려 눈 길을 끌었다. 해남청년두드림센터에서는 지역 청년작가의 캘리그라피 작품을 전시하고, 소통과 공감이라는 주제로 한 초청 강연을 열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해남청년두드림센터 주변 천변에서는 캠핑존 과 동화산책길, 코스프레, 꽃 공예품 체험, 먹거리 판매 부스, 만물 트럭 등 소셜 프리마켓을 펼쳤다.

지난 8월 해남천 인근에 문을 연 해남청년두드 림센터는 청년 맞춤형 강좌 운영을 비롯해 일자리 상담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은 물 론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공간으로 주 목받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귀농·귀촌 새내기 농·어부들의 진솔한 삶

진도군 경험 담은 수기집 발간 귀농·귀촌 지침서로도 활용

진도군이 귀농·귀촌인들의 다양하고 진솔한 삶의 모습을 담은 귀농·귀촌 수기집 '나는 진도 사람입니다'를 발간했다. 〈사진〉 수기집은 진도군 귀농·귀촌 정착수기 공모 전에서 당선된 8명의 실제 경험담을 담았다.

귀농·귀촌인에게 필요한 사전정보와 성공 전략, 귀농·귀촌 결정을 위한 주요 사항 등 필 수적인 내용으로 귀농·귀촌 지침서로도 활용 될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수필 공모전 당선자의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로 농촌 현장에서 실시한 농산물 브랜드화와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도 담고 있다.

진도군은 이 수기집이 귀농·귀촌 홍보 도우 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년 동안 총

올해도 지속적인 도시민 상담, 박람회 참가, 주택·농지 정보 구축 등을 통해 도시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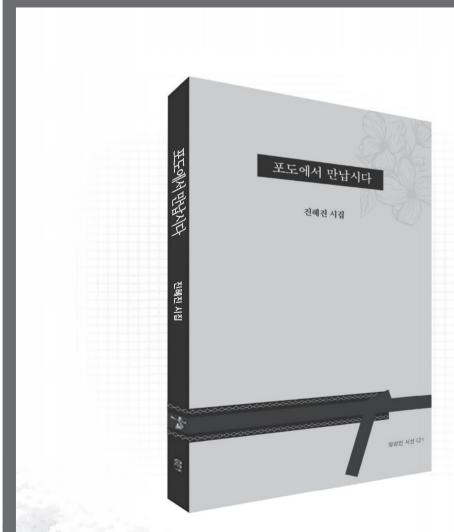
6647명이 진도군으로 귀농·귀촌했다.



의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농업 창업자금 3억원, 주택 구입·신축비 7500만원, 영농기술을 배울 수 있는 현장실 습과 수강료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선배 귀농·귀촌인들이 직접 겪은 경험과 시행착오 사례 등의 실제 경험 담과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진혜진 시인 프로필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넴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건네진 사인첫 시기

포도에서 만납시다

うだト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산맥 등단 | 시집「포도에서 만납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시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